

# 도시지역 노인의 부부관계 연구

## : 생활스트레스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김진분(동국대 강사) · 전미경(동국대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활스트레스와 여가시간을 남편과 아내같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 노년기 스트레스 관리와 노인부부에 맞는 여가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며,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유소노인 즉, 65세에서 75세까지의 노인부부 10쌍을 대상으로 부부 각각 1회기씩 총 2회기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추가 질문으로 1~2회 전화면담, 현장일지, 자기반성노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Moustakas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노년기 생활 스트레스와 여가활동 안에서 노인부부는 어떠한 관계 경험을 하고 있는가’이다.

연구결과 첫째, 부부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대부분의 아내는 노인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부분의 남편은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는 건강 및 연령과 무관하였다. 반면 남녀 노인 모두 타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자신을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둘째, 노년기 이전 아무리 만족했던 부부라 할지라도 은퇴 후 달라진 역할에 대한 재규정을 하지 않는다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분화된 산업구조 속의 남성은 은퇴 이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주어졌으나, 돌봄 노동 영역에 있던 여성들은 은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 조정이 꼭 필요하였고, 이것이 재조정 되지 않는다면 이전관계와 무관하게 부부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노년기 이전까지 심각한 갈등 부부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배우자를 위해 노력했을 때 노년기 부부관계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부부에게는 주로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중년 자녀의 결혼문제, 은퇴 후 적응, 가사분담영역의 문제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 노인부부가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은퇴 후 적응 문제는 부부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스트레스원이 부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특히 중년기 자녀의 결혼 문제, 성격차이 등의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결보다 관리가 필요했다. 넷째, 노인부부는 여가를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남편들은 대부분 등산, 운동 등 혼자서나 혹은 몇몇이서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아내들은 다른 노인들과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중년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남성들은 집에 돌아와 휴식을 선호하였고, 여성들은 외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년기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였다. 다섯째, 여가활동이 지나쳐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홀하거나, 배우자가 다른 이성노인과 여가시간을 공유할 때 여가활동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부부관계에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노인부부가 서로의 관계에 만족하려면, 서로의 시간 활용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간 모든 시간을 공유하기보다 각자 취미에 맞는 활동을 하고, 일부시간을 공유할 때 부부만족은 증가하였다. 노인부부는 같이 여행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가까운 명소에서 노인부부를 위한 관계향상 프로그램이나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노인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인 가운데 여행하고 싶다는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에 참여한 노인부부들이 비교적 부부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으로 위기에 놓여있는 노인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를 점검해보고, 갈등의 이유와 해결방법들을 찾아보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